Dave Mathewson 박사, 신약문학,

강의 26, 디모데전서 및 후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디모데전후서 26강에서 신약 역사와 문학을 가르치는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목회 서신으로 알려진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가장 좋은 분류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계속 다루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세 글자인 디모데 첫째와 둘째와 디도를 설명하는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그것이 바울의 삶의 시간적 틀에 어떻게 들어맞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내용은 사도행전, 특히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처형 직전에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중 하나인 미안해요,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서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마지막 수업 시간을 마쳤습니다. 편지의 작성과 작성에 기여한 몇 가지 요소, 그것이 우리가 특정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2장의 마지막 부분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성들에게 옷 입는 방법에 관해 지시하고 진주와 금과 땅은 머리로 자신을 꾸미지 말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가르치지도 말고 사람을 주관하지도 말라. 그리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거나 제기하기 시작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는가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날에도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지침이 바울의 1세기 교회에만 해당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성경 본문에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읽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해석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한 부분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읽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과 3장, 장로와 집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본 다음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로 넘어가서 해당 본문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바울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요약하고 싶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배적인 맥락과 지배적인 신학적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니까?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아버지, 신약성서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읽고 접하는 특권과 동시에 우리가 가진 책임을 인식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본문의 의미와 1세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듣고 이해할 수 있었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응답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세기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의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여성들에게 진주와 금과 땀은 머리로 화려하게 옷을 입지 말라고 지시한 것과 또한 침묵하라는 지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거나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두 가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나는 바울의 지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1세기에 새로운 로마 여성의 개념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고, 새로운 로마 여성의 개념이 생기기 조금 전에도 이 특정 본문에서 여성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지시는 아마도 아무 이유 없이 이 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들은 거짓 가르침과 아마도 새로운 로마 여성에 대한 이 생각이 현재 야기한 문제에 대한 대응일 것입니다. 교회.

이는 2장이 주로 예배를 위해 모이는 교회의 상황을 다룬다는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개인의 사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드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바울이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2장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한 환경과 맥락에 두십시오. 바울은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주는 지침, 특히 남성을 가르치거나 권위를 갖지 말라는 지시는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지시가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의 어느 교회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특정 문제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이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이 지침이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느 교회에나 주었을 교훈입니다. 단지 교회의 문제 때문에 우연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것뿐입니다. 그들이 강조할 것 중 하나는 2장과 14절, 실제로는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지시를 창조에 근거를 두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 흥미롭게도 바울은 그의 지시를 창조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즉,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 하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안은 하나님께서 남성 리더십의 2장에서 볼 수 있는 역할을 창조, 즉 사물이 창조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지시를 창조에 기초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창조하신 방식이며, 이제 바울은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에 대한 더 많은 강조가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것과 바울이 이 지침이 1세기나 21세기에 모든 교회와 환경에서 순종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지시는 창조, 즉 창조 질서의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을 데려가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변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이러한 지침을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지침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반드시 다른 어떤 교회에도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에베소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는 그 문제를 억제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이 특정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하면 바울은 이러한 지시가 보편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창조 순서를 강조하고 그의 지시를 창조 순서에 근거하여 이러한 지침을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텍스트를 더 많은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특정 설정에 더 집중하고 이 지침을 1세기 교회에만 국한시키게 만드는 구체적인 문제와 배경에 따라 본문을 읽는 방법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침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지침이 1세기 교회에만 해당되고 바울이 그것이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전히 적용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침이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텍스트를 적용하면 됩니다.

내 말은, 어느 쪽이든 그것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방법은 지침이 구속력이 있고 항상 적용된다고 생각하는지, 보편적으로 유효한 원리인지, 아니면 지침이 주로 1세기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울이 연설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이 책 시리즈를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Zondervan Publishing Company의 Counterpoint 시리즈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그들은 이것에 대한 네 가지 관점과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전체 시리즈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관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다른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이러한 지침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많은 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지침이 구속력이 있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주장을 많이 읽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그것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Zondervan Publishing 시리즈, Counterpoint 시리즈 및 Two Views of Women in Ministry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장과 매우 유사한 또 다른 예인 3장은 우리가 구성하는 배경과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에 따라 2장을 읽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장은 목회서신, 특히 디모데전서 전반에 대한 논의와 그 전반적인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주로 일종의 교회 매뉴얼로 본다면, 우리는 교회 매뉴얼 관점 또는 디모데전서의 교육 매뉴얼 관점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 교회를 조직하는 방법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 주로 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나는 그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처음 서너 구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즉, 그가 이미 쓴 다른 두 편 편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거짓 가르침이나 왜곡된 가르침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교회 매뉴얼을 작성한다면 그가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디모데에게 이 문제, 이

가르침, 그것이 무엇이든 정확히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만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3장을 읽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장은 교회가 두 가지 다른 역할, 즉 장로와 집사를 수행할 개인을 선택하는 데 전념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장로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독자들에게 장로가 되는 것은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자격이 있으며, 장로가 택함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자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을 하고, 집사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이 본문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은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장로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지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싸우고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이 거짓 가르침으로? 만약 후자라면 디모데나 바울이 장로와 집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는지 등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찾은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 1세기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귀중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성격에 관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가르치는 능력이 강조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대한 요약은,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아마도 교회가 이 거짓 가르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자격을 갖춘 지도자, 특히 건전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와 집사가 하는 일에 대해 사실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합니다. 장로와 집사라는 단어 자체와 약간의 설명을 통해 장로의 주요 기능은 교회의 주요 감독, 특히 가르치는 것임을 알 수 있지만 집사는 훨씬 덜 명확합니다.

그들은 장로들 아래에 속한 어떤 집단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라는 개념은 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육체적인 일만 수행한다는 뜻인가요? 나는 장로들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담당하고 집사들이 육체적인 유지를 담당하는 교회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에서 반드시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집사와 장로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가 그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는 주로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 가르침을 견딜 수 있는 장로와 집사가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종류의 리더십이 직면한 거짓 가르침에 가장 잘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나열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로와 집사가 몇 명이나 있어야 하는지, 그들이 교대로 있어야 하는지, 3년 동안 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다만 바울은 장로와 집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디모데전서를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장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 내에서 일차적인 감독, 보살핌, 가르치는 책임을 맡는 일차적인 역할을 맡았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단에는 장로와 집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때때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들 그걸 보나요? 배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읽는지, 그런 글을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러한 일탈적인 가르침이 이미 교회 지도자 중 일부에게 영향을 미쳤거나 이 일탈적인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실제로 교회에 침투했거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격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이것은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울의 방법이 되십시오.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최대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단지 장로와 집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와 집사가 되십시오. 그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봉사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짓 가르침을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확보함으로써 어떻게 거짓 가르침에 맞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며,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기능해야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질문에 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그랬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주요 관심은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가르침이 교회, 이번에는 에베소 교회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가져갈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시 말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이 상황, 교회 안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임명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교회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이 가르침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모든 지시사항은 교회가 가르침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은 아마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가르침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았어, 좋아.

디모데전서에 관해 질문이 있나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디모데전서에 너무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넓은 맥락에 비추어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수반되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구절을 다시 약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재구성하는 능력이 신약성경의 특정 부분을 읽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초대교회 우편함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내서 디모데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서 궁극적으로 분명해지는 것은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으며 죽음이 매우 임박했음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특히 4장과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전제나 전제로 벌써 내가 부어지고 있고 나의 떠날 기약도 이르렀느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그 날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디모데후서를 읽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바울은 왜 글을 썼는가? 방금 요약했듯이 풀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투옥되어 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가 지금 하는 일은 횃불을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횃불을 디모데에게 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유산과 바울의 복음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온 이 복음입니다.

이제 Paul은 그것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형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그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그에게 횃불을 전달합니다.

디모데후서의 편지는 또한 어떤 면에서 유연장, 일종의 유연장으로 알려진 1세기 직전, 1세기 도중, 1세기 약간 이후의 상당히 일반적인 유형의 글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영어 번역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유연장은 죽어가는 영웅의 마지막 말이었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종을 맞이한 유명한 사람은 제자들이나 가족이나 자녀에게 이별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윤리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요한계시록이나 그와 비슷한 책에서 읽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는 그러한 종류의 문헌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서신이나 편지 형태의 유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자 유언입니다. 죽어가는 영웅의 마지막 말입니다.

바울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처형대에 있거나 곧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핵심은 제가 방금 읽은 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벌써 전제로 부어지고 떠날 때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유언서는 영웅의 출발과 죽음을 분명히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별과 마지막 지시를 다시 전달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바울의 마지막 지시와 이별 지시를 받은 사람은 디모데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웅의 이별의 말. 만일 내가 그 상황과 배경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디모데후서의 주제를 고른다면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지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가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믿음, 복음,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햇불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위해 싸우고 그것을 위해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디모데가 그의 삶과 가르침 모두에서 그 복음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 복음에서 다양한 은유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제가 디모데후서에 관해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다시 한 번, 이 글이 작성된 이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디도서는 세 권 중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번에도 바울의 편지는 대체로 길이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는 마지막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확실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때문에 바울 서신 모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나 디도서는 흥미로운 책이다.

그리고 디도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디모데전서와 많은 유사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Titus를 빨리 통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디도서에 관해 집중하고 싶은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티투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디모데전서와 후서처럼 디도서는 교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개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목회서신들은 바울의 다른 전략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본 서신 서문의 서문 내에서 대부분의 다른 책들은 특정 교회, 특정 교회 또는 교회들에 대해 언급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에베소서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보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에 대해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로마 제국.

그러나 바울이 쓴 편지의 대부분은 교회의 이름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바울이 특정 교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책임지고 그 정보를 교회에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즉 디모데나 디도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다른 예외는 분명히 빌레몬이었지만,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사이의 다소 구체적인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 넓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의도되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좀 흥미롭습니다. Paul은 여기서 다른 전략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교회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그 교회를 위해 임명한 특정한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은 지시와 내용을 교회에 전달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티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디도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매우 비슷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 바울에 의해 그레데 교회에 남겨졌을 것입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짓되거나 왜곡된 가르침의 성격이 무엇이든, 비슷한 일이 디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디도서를 읽어보면 분명히 바울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제 그는 디도에게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남겨두고 디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시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이제 크레타 섬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여기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다시 보셨군요. 바로 이곳이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로마로의 마지막 여행 중 하나에서 바울이 그레데 섬을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교회가 세워진 그레데이고 이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보냈습니다.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에도 일부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감염시키고 있으며,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또 다른 점은 아마도 내가 디모데후서를 통해 이것에 대해 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적어도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아마도 디도서는 아마도 사도행전 28장의 사건 이후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것이 아마도 누가의 문학적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약속의 성취와 점점 더 작은 유대인 영토에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누가는 이사야의 성취처럼 복음이 결국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복음이 로마에 이르자 누가는 그의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겪고 있는 투옥, 곧 그의 죽음으로 이어질 투옥은 사도행전 28장에서 읽은 것과는 다른 투옥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여행으로 끝납니다. 이 빨간 선으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 후 언젠가 감옥에서 풀려나 다른 활동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썼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시 감옥에 갇혔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후서를 썼을 것입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가 사도행전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대한 다른 제안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적어도 기독교 학자들과 신약성서 연구자들에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제안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이 있는 곳이에요. 파괴적인 편지.

흥미롭게도, 티투스에 관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때때로 크레타 섬의 수많은 사상, 신념, 전통 또는 명성의 일부를 전복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크레타 섬은 실제로 속담이 되었고 부도덕하고 빠르고 방종한 생활로 잘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현대의 모습으로 묘사하거나 1세기 라스베거스나 그와 유사한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격렬하게 살며 무엇이든 하러 갔던 곳입니다. 크레타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헌에서, 크레타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동의어인 것 같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크레타는 전설적인 곳 중 하나였으며, 전통에 따르면 제우스 신의 탄생지이자 매장지였습니다.

왜 크레타 섬에 제우스 신을 묻었다는 전통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레타 섬은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석서에서 자주 인용하는 문구는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크레타 섬의 특징을 요약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흥미롭게도 우리가 디도서에서 읽은 내용에 유의해 보십시오. 티투스가 편지를 어떻게 여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레타 섬과 직접적인 대조와 패러디로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레데는 거짓말하기로 유명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대 크레타 섬의 전형적인 문화적 가치나 생활 방식을 전복시키는 다른 사례를 디도서 전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2장에 있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2장 11절부터 14장까지에서 바울은 디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여러분은 그 언어 중 일부가 그레데 사람들이 살았을 생활 방식을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바울은 크레타 문화의 전형적인 생활 방식에 비해 좀 더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생활 방식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디도서 전체에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파괴적인 유형의 편지를 쓰고 전형적인 크레타 가치관이나 크레타 신화 또는 크레타 가르침과 생활 방식 선택 등을 전복하고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디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도를 가르치기 위해 다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디도는 개인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것처럼, 이제 그는 교회에 침투한 가르침을 다루기 위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 두었습니다.

바울은 이교 세상에서 교회의 삶에 관해 디도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교 문화를 전복시키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된 덕의 삶을 살도록 격려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교 환경에서 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 디도에게 지시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거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크레타 문화가 가르쳤던 생활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진정한 미덕의 생활 방식을 추구합니다.

좋은.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디도서는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살펴보고자 하는 책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이르면 히브리서에 대해 꽤 천천히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의미에서 그 편지들을 종합함으로써 바울의 편지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매우 넓은 붓질로 그림을

그린다면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강조하고 싶은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온 것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사고와 가르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지배적인 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은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 중 하나가 과거에 이것을 제안한 학생에게 빗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 꼭대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것을 확장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편지들을 보고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내가 본 것들이 그의 편지들을 통해 실처럼 흐르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무엇보다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칭의나 구원은 율법의 행위와는 별개로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것이며, 행위는 여전히 성령에 의해 변화된 삶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선택사항이거나 전혀 역할을 하지 않거나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구원, 즉 칭의는 율법의 행위나 다른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요, 필연적으로 선행이 수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밝힌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 언약 성령의 결과입니다. 또 다른 주요 주제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이제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모세 율법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속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세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고 모세의 율법 아래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의 경우 이는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것, 즉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에 답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출발점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참 백성은 누구인가? 창세기 12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큰 민족을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과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낸 이유는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과 칭의의 축복과 새 언약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등하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합니다. 그들은 똑같이 구원의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동등하게 의롭게 되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참된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약속이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함을 결정하는 요소는 더 이상 민족적 정체성이나 모세의 율법 준수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면 아브라함을 통해 오는 구원의 축복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비록 이것이 거의 강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고난을 통해 나타나며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와 같은 책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상징으로 고난을 얼마나 자주 강조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수사적 장점을 연설에서 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사도직의 표시로 일관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실제로 구약에서 시작된 주제를 매우 설득력 있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특히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고통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연합됨을 통해 죄와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끊임없이 다루어져야 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울 서신 전체에서 보아온 직설적이고 명령적인 긴장을 이미 반영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즉, 바울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당신은 죄에 대해 죽었고 이미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와 같은 다소 절대적인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런 절대적인 진술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다음 돌아서서 자신의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것의 일부이지만 아직 긴장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죄를 이기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권세와 영역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그것을 통해 해방되었습니다. 그건 이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전이 아직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전히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죄를 죽이십시오.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살다.

여러분 자신을 살아 있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주는 명령과 명령을 통해 깨달아야 할 '아직'의 측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분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동기 부여뿐만 아니라 활성화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람이 죄를 이기고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가능해지며 심지어 가능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미 죄에 대해 죽었음을 바울이 확신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자신을 산 자로, 하나님께 산 자로 드리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설법은 단지 동기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에 있는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원과 함께 했던 슬라이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죽음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되는 영역과 영역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이전은 아직 최종적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령형을 필요하게 만드는 아직은 아닌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오류와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지식인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개 그들이 뭔가 잘못 믿고 있다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그 잘못된 믿음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와 상응하는 생활방식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직면한 거짓 가르침, 즉 신비로운 유형의 유대교에 대처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칠 때, 단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살아야 할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기만적인 생활 방식이나 속임수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오류와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이해뿐 아니라 복음의 윤리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덧붙이자면, 그것이 히브리서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마지막으로 추가할 것은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에 대한 관심입니다. 개인적인 의미. 즉, 바울은 우리의 칭의가 사회적 구별을 초월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전 세계를 화해시키려는 하느님의 계획이 이미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교회는 일종의 첫 번째 분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정하실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즉 사람들의 연합과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흥미로운 점은 바울의 편지를 읽기 시작하면 그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마지막 것은 아마도 구원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근본적으로 이 몸인 교회가 공동체로서 연합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의 서신을 대강 읽어보면 그 점이 매우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록에 추가하고 싶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디모데전후서 26장에서 신약 역사와 문학을 가르치는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